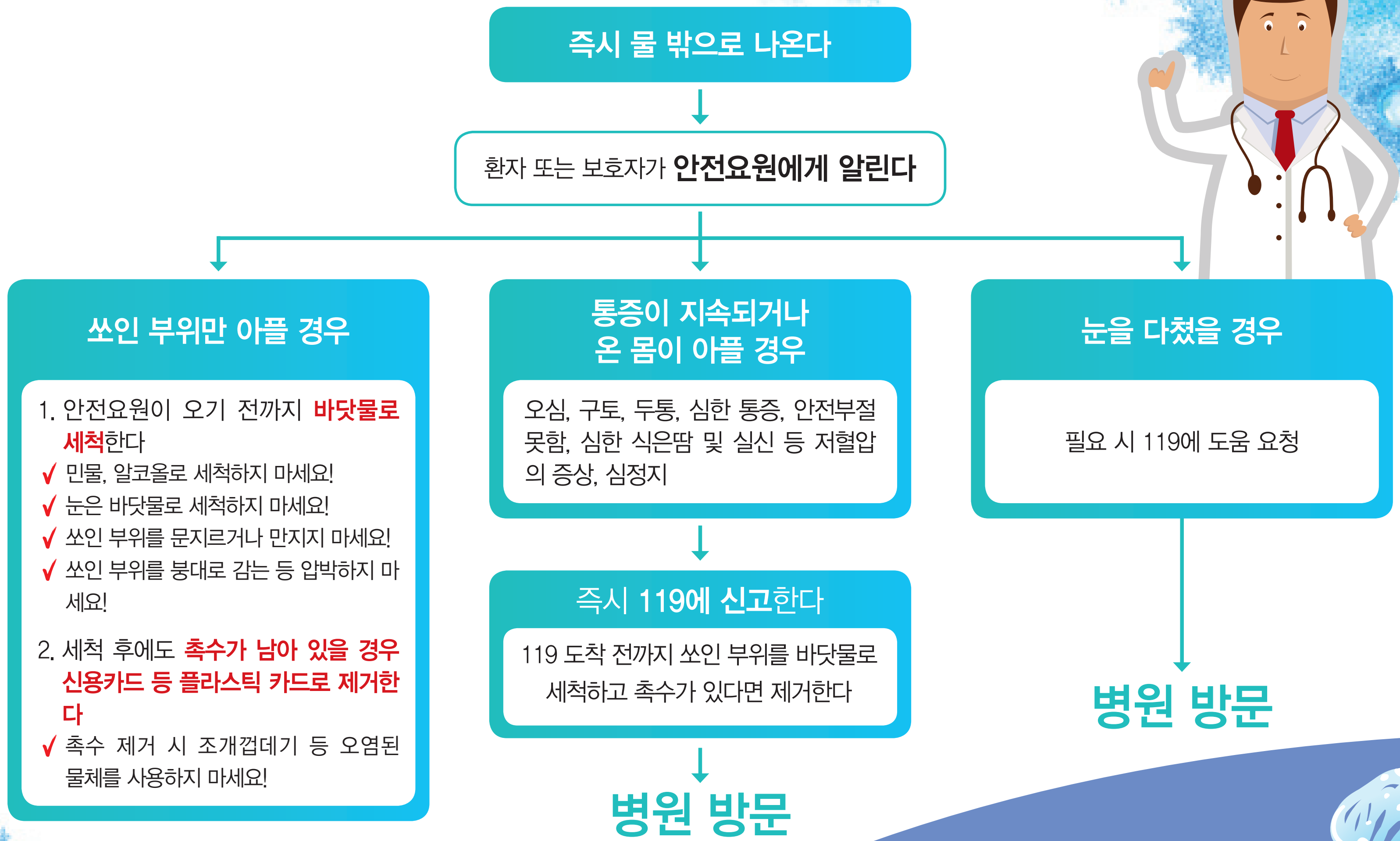


# 해파리에 쏘였을 때



## 쏘인 부위만 아플 경우

1. 안전요원이 오기 전까지 **바닷물로 세척**한다
  - ✓ 민물, 알코올로 세척하지 마세요!
  - ✓ 눈은 바닷물로 세척하지 마세요!
  - ✓ 쏘인 부위를 문지르거나 만지지 마세요!
  - ✓ 쏘인 부위를 붕대로 감는 등 압박하지 마세요!
2. 세척 후에도 **촉수가 남아 있을 경우 신용카드 등 플라스틱 카드로 제거**한다
  - ✓ 촉수 제거 시 조개껍데기 등 오염된 물체를 사용하지 마세요!

## 통증이 지속되거나 온 몸이 아플 경우

오심, 구토, 두통, 심한 통증, 안전부절 못함, 심한 식은땀 및 실신 등 저혈압의 증상, 심정지

## 즉시 119에 신고한다

119 도착 전까지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세척하고 촉수가 있다면 제거한다

## 눈을 다쳤을 경우

필요 시 119에 도움 요청

**병원 방문**

**병원 방문**

## 해파리 주의사항

- ✓ 해변으로 떠나기 전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의 '해파리속보'란을 통해 해파리 출현종 및 분포상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1.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요원에게 신고한다.
2. 해파리를 죽은 것이라도 절대 직접 만지지 않는다.
3. 해변을 걸을 땐 되도록 신발을 신는다.
4. 자주 발견되는 곳은 출입을 피하고 조심한다.  
(부유물, 거품이 많은 곳, 물의 흐름이 느껴지는 만·항구)

수온 상승,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최근 해파리의 출몰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쏘임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한해 총 2039건의 쏘임사고가 발생하고 그중 1건의 사망사고도 있었는데요, 해파리 쏘임 시 응급처치법과 해파리 주의사항을 미리미리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